

# 市民性 教育의 必要性

延世大 教育學科 金 蘭 洙

새삼스러히 이러한 제목을 다루기에는 어색한 느낌이 우선 앞선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훌륭한 公民의 資質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教育法에 明示된 교육목표인 까닭이다. 필자로서는 지난번에 열렸던 간호학교 교육자 회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렸던 일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원고를 부탁 받게 되었으니 그 때의 말은 되풀이 하기르 한다.

원래 이 문제를 考究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學校教育의 社會的機能과 관련지어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나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말의 실마리를 잡았다.

## 世紀的 危機意識과 시민성 교육의 필요

금세기 최고의 碩學으로 일컬어지는 Bertrand Russell은 1950년에 “人類의 將來”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하나 썼는데, 그의 말을 들잡

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로부터는 36년 이내에, 人類는 다음의 세가지 可能性 가운데 하나의 運命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그 첫째는 地球上의 아마도 生命體를 가진 것은 전부가 되겠지만, 人類의 終末이 오거나,

두째로는 絶大數의 인류가 死滅을 당한 후에 극소수가 生存하여서 人類는 野蠻期로 逆傳되거나

세째로는 전쟁의 主要武器를 독점한 單一政府下에서의 世界統一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 수필집의 제목이 “Unpopular Essays”인데 그의 逆說的表現을 빌리면 두뇌가 열살쯤 난 어린애 정도 일 것 같으면 그의 수필 내용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句節이 있을 터이니, 그의 수필집은 popular 하게 되질 못 할 것이고 그렇다면 unpopular essays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에 있어서 필자의 아둔한

두뇌로서는 그의 人類將來論이 쉽게 首肯이 가질 않는다. 쉽게 世界統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世界戰爭으로 휘말려 들어가 티만큼 核武器의 위험을 兩大陣營의 지도자가 沒知覺 하지는 않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로서는 위의 세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실현될 가망이 크다에 대해서는 아는 체를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주저함이 없이 主張하는 바는 오래 동안 우리가 친숙해 내려온 種類的體制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근자의 수필에서 오늘날의 東西間의 투쟁은 理念的인 側面을 떠우고 있지만, 實에 있어서는 그 모두가 權力愛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밖의 것은 단순히 혼통한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西方世界와 쓰련과 사이에 相互懷疑가 분명한 까닭으로 해서 純순한 合意에 의한 世界統一이라는 것은 虛妄한 것이라고 樂觀主義者에게 경고 하기도 한다. 힘에 의해서만 하나의 世界政府는 세워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류의 思想 빛 에 너지가 전쟁에 쓰여지지 않고 오늘 의 科學的 技術이 인간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一世代 이내에 전 세계에 걸

쳐있는 모든 심각한 貧困은 解消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國際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武力으로서가 아니라 法으로서 다스리려는 경향이 짙어 가는데 理性과 善意를 다한 討議, 說得, 妥協으로서 共同의 利害問題를 해결하게 될 希望이 이루어지면 人類는 史上 未曾有의 樂園을 地上에 實現할 것이고 不然이면 極惡의 災害를 면하지 못 할 것이라고 人類의 將來에 대하여 그는 結論 짓고 있다.

人類의 世界市民性 즉 人類로서의 共同體 意識과 福祉增進을 위한 協調와 適法의 態度가 形成되면 地上에 天國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地獄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다음으로 自由社會를 세우는데 必要한 條件을 論議하는 가운데 軍事 專門家인 웨베마이야 장군이 主張한 바를 引用해 보기로 한다.

그도 텃셀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국제적 위기상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自由陣營이 武力이 敵을 앞서고 강하여야 한다는 데는 異議가 없다고 하면서도 問題의 核心을 파고 들어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운다.

우선 戰略 strategy이라는 用語를 軍事的 意味를 지닌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릇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政治的, 經濟的, 心理的 그리고 軍事的 戰略의 넷으로 갈라서

論議를 전개시키고 있다.

戰略에 있어서 政治的 資源 political resources 으로서는 條約·協定·同盟·外交의 認定·그밖의 外交의 전통적 방식을 지적하고, 經濟的(economic) 資源 으로서는 互惡的 貿易協定·通商停止·港灣封鎖·關稅·그밖의 財政的 및 經濟的 원조계획을 들고 있다. 心理學的(psychological) 資源 으로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의 宣傳·교육적 및 公報(PR) 계획·문화적 및 과학적인 着想의 교환 등을 들고 軍事의(military) 資源 으로서는 陸·海·空의 作戰軍事力을 들고 있다. 전쟁은 기본적인 국가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실현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태에서만 이르는 것이나 戰略의 진정한 卓越性은 敵과 싸워서 이기는데 있는 것이기 보다는 싸우지 아니하고 敵의 抵抗力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하는 孫子兵法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見地로 볼 때 冷戰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戰略上 非軍事의 武器인 政治的·經濟的 및 心理面作戰을 통해서 거듭되는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失脚을 당했지만 후루시 초프가 미국을 매장하고 그들의 손자들은 공산주의하에서 살게 되리라고 한 妄言을 박차고 미국의 자손들이 人間의 尊嚴性과 自由를 확보하고 繁榮과 安定 속에서 삶의 기쁨

을 누리게 하려면 戰略上의 강조점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全面戰爭이 일어나서 超破壞의 인 무기인 核폭탄·化學的毒物·生物學的細菌 등이 총동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自己의 意志를 적에게 성공적으로 강요 시킨다는 의미의 승리는 어느 쪽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광범한 살육과 파괴는 美蘇의 軍事力을 無能化 시켜서 제 작기 강력한 공격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적의 基地를 浸攻 또는 占領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軍事的인 승리라는 것은 달성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 있어서 軍事力을 유지한다는 것은 絕對적으로 必要하다는 前提를 받아 드리지만서도 普遍的敎育(universal education)이야 말로 自由를 방어하고 세계 각 국민 간에 名譽로운 平和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戰略武器라는 것을 主張하게 되는 것이다. 광범한 科學的 努力과 함께 數十億 鎊의 돈이 효과적인 軍事力과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지난 몇 해 동안에 쓰여져 오고 있다. 우리는 同一한 強調를 國內의 國民의 敎育계획 그리고 去今 人類의 問題에 관한 事實的 情報를 제공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民主的 政治型態과 국제적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目標을 설명하고 미

국의 生活이 발달해 온 중요한 局面에 대해서 그 이유 및 생활방식을 알리는데 同一한 강조를 가해야 할 것이다.”

웨데마이야 장군의 主張은 우리의 사정에도 一脈相通하는 말로 불수가 있다. 武力의 增強만이 오늘날의 國土防衛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기를 잡을 靑少年이 人間의 尊嚴性和 自由의 高貴함을 깨닫고 透徹한 民主的 信念을 갖고 自由世界의 文化를 守護하고자 하는 決意를 갖게 될 때 國土防衛는 萬全을 期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교육의 社會的機能과 市民教育의 필요

우리는 오늘날의 국제적 위기의식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가해져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살폈거니와 시민교육의 필요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학교가 지니는 社會的 機能과의 關係에서 찾아 보아야 한다.

교육은 본래 既成世代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文化的 遺産을 전달해서 其社會의 維持·存續을 가능하게 하는데 一次的인 使命을 가지고 있다. 人間은 他 動物과는 달리 自體의 經驗을 蓄積할 수가 있고 교육을 통해서 蓄積한 文化財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이것을 가르켜 教育의 保守的 또는 現狀維持의 機能이라고 부른다.

한편 교육에 있어서는 消極적으로 既成의 文化를 傳達하는데 끝나고 마는 것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積極적으로 그 文化를 改造·修考·進歩시키는 데도 寄與할 수 있는 것이다. 社會를 改造하고 文化를 淨化·向上시키는 가장 繼續的이고, 漸進的이고 經濟的인 手段은 젊은이에게 주는 教育의 機會를 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프라토가 그의 “共和國”속에서 교육의 임무는 社會惡에 젖어 있는 在來의 傳統을 再現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理想社會를 樹立하는데 貢獻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 말이나, 칸트가 “교육은 社會의 現狀에 있어서 成功을 염두에 두고 行할 것이 아니라, 理想的인 人間像의 形成에 理想을 두고 보다 나은 社會의 創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교육의 創造的 또는 進歩的 機能을 강조한 것이다.

도리켜 우리의 社會現實과 우리 文化의 本質을 파헤쳐 보아야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느 機能이 강조되어야만 우리의 落後性을 조속히 脫皮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겠는데 紙面의 限定도 있고 해서 오늘날의 經濟危機 문제와 關係해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데 끌이고저 한다.

金基深氏의 조사로는 해방후 物價高는 1963년말 까지에 무더 2400 배가 오르고 있다고 한다. 物價高는

不回歸의 上昇曲線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 수록 加速的인 경향을 들어 낸다고 한다.

天井 높은 줄 모르개 뛰어 오르는 국민의 생활 난 속에서 오늘의 經濟破綻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週期的 經濟施策이 요청되고 시민의 늘어가는 消費性向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거나와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輸出貿易이 振興되어야 한다는 것도 크게 論議가 되고 있다.

한편 모처럼 開拓된 海外市場도 貿易商의 不信 行爲로 말미암아 막히고 끊어져 버리는 경향이 紙上에 보도되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KS商標制를 써서 對內外 信用度를 높이기 위한 韓國標準商品의 표시를 쓰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想起되는 것은 荒廢한 덴마크가 高等公民學校 運動을 통하여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게 된 습은 逸活의 한 토막이다. 최근 그곳을 다녀온 불리학자 安世熙박사의 말을 빌리면 그곳 한 교수가 말하기를 세계 여러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덴마크는 지금의 좋은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번창한 이 나라도 100년전에는 悲境에 처해 있었고 이 무렵의 民族先覺者 그룬드비히(Grundtvig)는 書籍과 知識中心의 교육

을 등박하고 18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확한 지식과 知的인 啓發로서 좋은 思考의 습성을 키우고져 고등공민학교 운동을 제창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긴 어느 유명한 고등공민학교에 어느 시골 부자가 얼빠진 자식의 생활태도를 바로 세워 보코져 그 학교에 보냈다. 그 아들이 학교에 다달아 보니 外觀이 스산하고 아버지의 눈이 평가하듯 바와는 달라 실망을 하였다. 교무실을 찾으려 간 가족장화의 발 뒤꿈치 소리를 요란히 내며 가노라니 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엄숙한 분위기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目睹하게 되었다.

도대체 공부는 하지 않고 뒷을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구두발 소리에 고개를 돌린 교사가 “어떻게 왔느냐?”고 묻게 되었다. 이에 답하여 그 청년은 “나 이 학교에 다니려고 왔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無禮한 응답을 하였다. 교사는 조용히 “자네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어떻게 하나?”하고 물으니 그 청년은 그것 참 쉬운 入試문제라는 듯이 “그야 태압을 감아 노아야 다음 날 아침도 시계가 움직일 것이 아니냐?”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교사의 말이 “여기는 바로 사람의 精神의 태압을 감아서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은 그에게

이해되었을 리 없다. 농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注入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祖國의 부흥을 念願하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의 靈感이 相互刺戟되어 精神教育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고 국민의 道德的·人格的 修養을 根幹으로 한 것이다. 道德的 頹廢, 지나친 利己心 속에 독일 민족이 패망하게 된 것임을 강조한 휘히테(Fichte)의 주장과도 통한다.

그리하여 벤마아크의 농장에서 사들인 계란으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영국의 가정 주부가 품은 것을 보고 그 농장에 편지를 띄우면 곧 정중한 謝過文과 함께 계란 수십구더미를 팔아야 될 비싼 비용으로 계란 하나를 고히 싸서 항공편으로 불려오는 벤마아크 사람의 誠實性, 對外的 信用은 오늘의 부흥을 가져온 기본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比較教育學의 泰山인 하롤드·R·W·벤자민 박사는 강조한 바가 있다.

위의 逸話は 오늘 우리의 經濟的 貧困을 타개하는 일이 비단 經濟施策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經濟人 나아가서 국민 일반의 道德的·人格的 改造 여하에도 크게 依存한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한 社會를 改造하는 데는 두 가지 고찰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外的인 制度의 革新을 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市民的 內的인 條件을 고치는 것이다. 벤마아크의 경우는 人間改造를 통하여 社會改造를 이

룩한 例가 된다. 인간의 內的條件의 變容을 목적인 것이 교육의 課題가 된다. 그리하여 革命이 국민에게 一時的으로 강력한 충격과 긴장을 주어서 짧은 기간이나마 行動變容을 주는 점에서 後期의 教育으로 비유한다면 教育은 長期의 革命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社會의 改造를 위해서는 制度的 變革과 市民의 內的 條件을 攻擊하는 教育의 두 수레가 발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相互補充의 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교육은 개인적인 立身揚名을 위주로 하고 事實的인 知識을 쌓어 가는데 혈안이 된 오늘의 교육을 그대로는 認하는 뜻에서 말할 수가 없다. 교육은 올바르게 그 本義를 잡으면 概念의 形成(concept formation)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態度形成(attitude formation)을 基本으로 하는데 사람됨이 올바르게 되어야 획득한 지식을 바르게 쓸 줄 알고 나날의 부락치는 문제 해결에 결성과 創意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市民性 教育(citizenship education)은 바로 여기에 주력을 하는 것이다. 흔히 民主主義를 하나의 政治 또는 社會型態을 가르켜서 獨裁政治, 君主制에 對比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벡카(Carl L. Becker)가 그의 現代 民主主義論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民主政治의 능극적 특

적은 각개인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自律的 人間이 되게 하는데 있고 민주주의의 根本 前提는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自主的 이고 創意的인 문제 해결력에 있다. 따라서 민주사회는 政府에 의한 外的인 統制보다는 각 市民의 內的인 道德的인 自己統制 속에서 그 실현을 약속 받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의 의미를 넘어서 人間關係를 律하는 倫理的 原則으로 논의가 되고 하나의 價値體系로서 설명될 만큼 그 뜻이 擴大解釋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人間關係의 宣揚에 두는 것도 여기에 緣由하는 것이다.

市民性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좁게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市民으로서 다 하여야 할 책임과 원리에 관

한 지식에 국한 시키기 쉬우나 그보다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 相互人格 존중과 협동을 해나갈 수 있는 人間關係의 技能을 키우고 自由·平等·善意·知性을 다하여는 民主的인 態度를 培養하려는 교육인 것이다.

이와 같은 市民性 教育의 문제가 一般教育을 하는 初·中等學校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專門教育을 하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民主社會의 中堅 指導者를 育成한다는 점에서 크게 강조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된다. 지난 여름 俗離山 세미나는 바로 大學에 있어서의 市民教育이 그 主題가 되었었다. 페스 타롯찌의 말과 같이 어느 한길의 專門 技術人이 되기에 앞서 하나의 人間으로서 自己完成을 하는 것을 도우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補聽器

製造元・日本골치튼補聽器株式會社

再入荷

귀가 어두운 분이  
말을 들을수 있는 그 기쁨!

TH 56型  
TH 58型



韓國總代理店 南北醫療器商社

서울・鍾路・瑞麟洞

文獻送呈